



공동체 소식



연중 제 15주일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의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의 정신을 담으셨으니,
저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 받는 불행한 형제들을 돌보게 하소서.



7월 기도지향

- 박재천(알베르토), 박계숙(헬레나) 가정
- Michael Gorman, 한교숙(헬레나)가정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마 침
33	41	163/164	31

박재식 토마스 신부님 방문

페루에서 오랫동안 선교활동을 하시던 박재식 토마스 신부님 (안동교구)께서 저희 캔사스 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먼 길 오시는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14(일) 중심미사 때, 저희 공동체와 함께 미사 봉헌하시며 특별 강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일미사 복사

금주	안광희(크리스토퍼), 김준영(요셉)
차주	안지영(카타리나), 고평원(프란치스코)

썰 기도 모임

- 일시 : 화요일 오후 7시 미사 후 /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회관
- ☞ ‘묵주기도의 모후’와 ‘평화의 모후’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일치하는 공동체로 성장합시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평협 월례회의

- 일시 : 7/14(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 신혜경,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차주	박혜정, 지은경, 윤유나, 김재은, 김정돌

홀리트리니티 히스페닉 공동체와 친교

- 일시 : 7/20(토) 오후 6시 미사
- 장소 : 스톤 채플
- ☞ 미사 후 바비큐 파티가 주차장 마당에서 있습니다. 구역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드로)
차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기타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 정성된 마음으로 주일미사에 꼭 참여합시다.
- 7, 8월 향복사는 없고, 시중복사만 있습니다.
- 7/16(화), 7/18(목) 미사는 없습니다.
- 한교숙 헬레나 자매님이 7/11(목)에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7/14(일) 오후 3시, 스톤 채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6/30	91명	389불	1,490불
07/07	85명	360불	770불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언젠가 여건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기회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어지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듣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를 잘 알려 줍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화해설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 (벨라스케스, 1620세기, Oil on canvas, National Gallery, 런던)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곁에서 들던 마리아에게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하십니다.(루카 10,41-42) 시편 저자는 “주여 나의 몫은 당신의 말씀을 간직하는 일입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중 가장 좋은 일은 그분의 말씀을 새기는 일입니다. 신앙의 해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새기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은총의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신명 30,10-14 <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어,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



없 는 이 들 아 주 님 을 찾 아 라 너 희 마음 은 살 리 라

- 주님 저는 은혜로운 때에 당신께 비오니
그 넓으신 자비 진실한 사랑으로 저를 도우소서 임의 자비하심 너그러우시니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사랑 지극하시니 저를 굽어 살피옵소서. ◎
- 가여울 쏜 저는 애처로우니
하느님 도와 주시어 일으키소서 하느님의 이름을
노래로 제가 찬미하오며 사은의 송가로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
- 하느님께서 시온을 구하시리라.
유다의 고을들을 이룩하시리라 당신 종들 후손이
대대로 이어받아 그 이름을 받드는 자 거기에 머무르리라. ◎

제 2 독서 : 콜로 1,15-20 <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 음 : 루카 10,25-37

<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쉐 마

“핑계 없이 바로 지금 실천하세요!”



옛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 놓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슨 일이든지 핑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따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어찌하여 따 먹었느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아담은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기보다는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계속해서 여자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자신을 꾀어 따 먹게 되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은 하느님으로부터 각각 벌을 받게 됩니다.(창세 3 참조)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서에 쓰인 하느님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신명 30,12) 결국 조건을 말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 마음을 감추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수석 사제들도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마태 27,42) 여기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핑계를 통해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강도에게 얻어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왜 피해 갈 수밖에 없었는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길거리에 방치된 시체와 접촉하였을 때는 죄를 짓고 부정한 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 한동안 격리되어 참회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종교 행사를 주관할지도 모르는 종교 지도자로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레위 21,1.11; 22,4-6 참조)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 는 왜 어떤 사마리아인을 진정 한 이웃으로 소개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을 두고 하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농담이 발전해서 ‘머리가 나쁘면 당장 고생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적합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바로 지금’ (right now)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면서 하느님 계명의 실천을 늦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계명을 들은 그 즉시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콜로 1,16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사업을 지체할 그 먼 핑계거리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형에 처해진 성 안드레아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느님을 희망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한 줄기 빛이 성 안드레아를 비춥니다. 이 빛은 하느님의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루카 9,23-24 참조)

- 서울대교구 전영준 바오로 신부 -



마중물

소풍가는 날처럼

천상병이란 시인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에 갇혔습니다. 푸르른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그의 삶은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귀천>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좌절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퍼부어대며 살 수 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생각을 달리하여 하루하루를 ‘소풍가는 날’ 처럼 즐겁게 살았노라고 이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판화에 재미있는 제목의 판화가 한 점 있습니다. 그 판화의 제목은 ‘향나무는 자기를 찌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입니다.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도끼날에도 독을 묻혀주지 않고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론 분노와 절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마다 ‘소풍가는 날처럼’ 생각을 바꾸어 살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를 찌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찌으려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향을 묻혀주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44. 그리스도 수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수난의 책임은 바로 죄 많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 신앙에 대한 교도권과 성인들의 증언에서, “죄인들 자신이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의 장본인이었고 그 도구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여, 교회는 주저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유대인들에게만 지웠던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가장 중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계속해서 죄에 다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인 만큼, 타락과 악에 빠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음 안에서, 그들 안에 계신 하느님의 아들을 거듭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의 죄가 유대인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대로, 만일 “그들이 깨달았다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1코린 2,8)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부정하면,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마귀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악습과 죄를 즐기므로써 마귀들과 함께 주님을 못 박았으며, 지금도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98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